

생활 속 스며드는 친환경 제품... “누구나 환경운동가 될 수 있어”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4〉몽몽만남 김민서·이기명 대표

광주 최초 제로웨이스트샵 카페...집객효과 ↑ 자활센터 제품 판매로 사회적 가치 '한 줌' 업

“수익보다 가치를 지키며 사업을 이어나가는 많은 청년들이 더 잘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2월 광주 동구에 문을 연 '몽몽만남'은 두 명의 20대 청년이 운영하는 광주에서 유일한 '제로웨이스트샵 카페'로 한옥을 개조한 내부가 자연스러운 멋을 더한다.

제로웨이스트 샵이란 일회용품 대신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홍보·판매하는 매장으로 최근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일반 소비자들 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샵을 담당하는 김민서(27·여) 대표는 대학 졸업 후 환경교육 사 자격을 취득해 어렸을 때부터 관심

을 둔 기후 위기 관련 분야로 취업했다. 그러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알게 됐고 창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카페를 담당하는 이기명(27) 대표는 부모님의 농장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상품화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딸기를 보고 이것을 활용해 친환경 카페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김 대표와 동업하게 됐다.

처음에는 제로웨이스트 제품 보다 딸기와 고구마 음료를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 집객효과를 톡톡히 해낸 카페 덕에 환경보호와 상관없이 차를 마시러 방문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제품들을 구경했고 대부분 구매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친환경은 물론 손님들에게

'의미 있는 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택했다.

사회적 기업의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자활센터 발달 장애인들이 만든 친환경 비누를 판매하는가 하면 지역 청년창업가들이 원데이클래스 등을 운영 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가게 한편에 마련된 '지구자원 구출센터'에 손님이나 주민들이 가져온 단추, 신발 끈, 플라스틱 빨대 등 분리 배출이 어려운 자원들을 모아 재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고, 오래도록 입지 않는 옷을 가져오면 교환권을 배부 해서 서로 마음에 드는 옷을 나누는 '교환 파티'도 열어 인기를 끌었다.

매년 식목일에는 카페 손님이 쓰던



왼쪽부터 카페음료 테이크아웃 시 제공되는 다회용 텀블러, 분리배출이 어려운 자원들을 수거하는 '지구자원 구출센터', 천연수세미·목재 컵·코끼리 통수침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전시된 매장 내부.



화분을 가져오면 모종 교환권을 증정해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두 대표는 사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환경 보호는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을 꼽았다.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에 커피를 제공하더라도 반납이 불편해 돌아간 손님들도 많았고 다회용 휴지 등 친환경 제품은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친환경 제품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주고 싶었던 김 대표는 고민 끝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생활 속 '스며드는' 제품들을 추천했다. 적은 세제로도 잘 닦이는 천연수세미, 일회용품을 대신하는 접이식 용기, 튼튼하고 가벼운 목재 컵 등을 구매한

손님들은 친환경 제품 덕분에 삶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했고 다른 제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환경보호에 동참해 갈 때 창업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친환경, 유기농 등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창업가들이 수익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가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만 친환경으로 바뀌면 누구나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며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쉬었다 가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슬 기자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 방문 컨설팅...중대재해법 대응 역량 강화 기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5-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을 4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또는 사업운영팀(062-716-3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만 기자

보해양조, 완도 '다시마' 담은 소주 선보인다

완도금일수협과 특산물 활용 MOU

보해양조가 완도 '다시마'를 담은 소주를 선보인다.

3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 2일 보해양조 장성공장 대회의실에서 완도금일수협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보해양조 서용민 마케팅본부장,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완도 다시마를 사용한 주류 제품 연구 및 개발

지원 ▲제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시장인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다.

양사는 MOU를 발판 삼아 상호유기적인 협력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남



지역의 '맛'과 '멋'에 어우러지는 활동으로 주류전문기업의 위상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은성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3대**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3대**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3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NH NongHyup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

석양 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로 만든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외 21종의 **국내산 재료**를 넣어 정성을 다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오가피나무

뽕나무잎

침뿌리

하수오덩이 뿌리

대추

천궁

지리산 마천 농협 흑염소

- 01 국산 흑염소**
국내산 방목 흑염소
- 02 흑염소 특유의 잡내 NO!**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 03 3중 저온추출방식!**
3중 저온 추출방식으로 고농축액기스입니다.
- 04 흑염소 추출액 무려 81%**
장시간 정성을 다해 달여 진합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 명가 흑염소 진액

70ml X 30포(1개월분) X 4박스(4개월분) + 체험분 5포

4개월분 139,000원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진액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위생관리인증

HS 호성유통 (유통전문업체)

제품구입문의 **062.373.0706**

계좌번호 **국민은행 : 772601-01-774187** 예금주 : 배정하(호성유통)